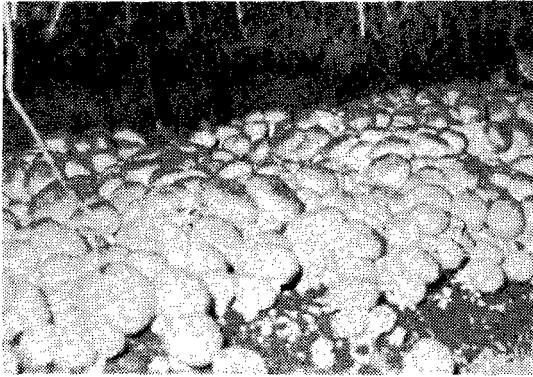


耐病多收性 신품종양송이 '705호' 육성

農技研 : 후기 4주까지 안전수확, 8% 증수가능
저온 · 마이코곤병 · 괴균병에 잘 견디



◇양송이 신품종 705호 발생광경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호(嗜好)에 알맞는 양송이 내병다수성(耐病多收性) 신품종 705호를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농업기술연구소 朴容煥 菌茸研究팀은 양송이 내병다수성(耐病多收性)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78년에 단포자분리발아(單孢子分離發芽)에 의하여 육성, '79년 생산력검정시험을 실시한바 현재 장려하고 있는 품종보다 8% 증수되는 신품종 「705호」를 육성하였다.

주요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양송이는 주기별 수량이 3주까지 수확한후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본 품종은 후기인 4주까지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고, 양송이 통조림을 만들때 중요

한 煮熟收率(삶은 수확량)도 69.6%로서 703호보다 1.2%가 더 높아 제품생산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버섯형성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17°C가 적은이나 이 품종은 15°C의 저온에서도 菌糸(광이실)가 강하게 성장되는 장점이 있고, 특히 양송이 재배에 피해가 심한 마이코곤病이나 괴균病(塊菌病)에도 강하다.

한편 수량면에서도 본품종은 평당 72.1kg을 생산하여 703호보다 8%나 증수되었다.